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건 ①

한 ‘우발적인’ 미디어법 학자의 회고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조나단 마셜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

인생은 미리 계획된 것보다 우발적인 경우가 더 많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종종 나 스스로 ‘우발적인’ 교수라고 말하는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된다.

“자유와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공부할 계획을 세웠던 1970년대 후반, 언론법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91년 당시 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연구는 1983년 대학원생으로서 첫 연구 발표를 한 이래 일종의 학문적 정점이었다”라고 쓴 바 있다. 이 말은 2024년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글은 언론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태생의 언론법학자로서 살아온 나의 일인칭 이야기다. 몇 년 전 박아란 교수(고려대)가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서 나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¹⁾

그것은 내 삶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이 글은 박 교수의 훌륭한 글에서 내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여기에서는 지난 40년간의 언론법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화를 다루고자 한다.

* 필자가 집필한 영문 칼럼을 번역한 글로, 2회에 걸쳐 게재되며 영어 원문을 첨부하였음.

1) 박아란 (2021). 미디어법의 세계화에 기여한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 고양: 정독.

미국에서의 학자의 삶을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듀엣

고인이 된 아내 이복임과 서던일리노이 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SIUC)의 스승이었던 해리 W. 스톤사이퍼(Harry W. Stonecipher) 교수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이복임은 40여 년 가까이 생(生)의 동반자로서, 스톤사이퍼 교수는 언론법 분야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유학생 제자로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분들이다. 나는 이 두 분께 깊은 빛을 지고 있다.

1978년 한국에서 학부 3학년 재학 시절 나는 아직 미국에 가고 싶은 10대 시절의 꿈이 언제 현실이 될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시 캠퍼스의 연인이었던 이복임이 내게 저널리즘 공부를 추천했다. 내가 타임(TIME) 등 영문 뉴스 주간지를 즐겨 읽는 것을 본 그녀는 저널리즘이 성격과 기질에 맞을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 같다.

서던일리노이 대학교(SIUC) 저널리즘 스쿨 지원서에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당시 석사과정 지원서에는 ‘언론법’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지만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장기적인 학문적 목표에 대한 신중한 선언이라기보다는 1970년대 고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진정한 열망이 표현된 것이었다.

언론학이나 법학적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던 나는 SIUC 입학에 성공했지만 강의실 안팎에서 허둥대면서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한번 부딪쳐볼 기회조차 있을까?”

우연히도 석사과정 첫해에 저명한 언론법학자인 스톤사이퍼 교수가 가르치는 ‘저널리즘법’을 수강하게 되었다. 기대와 달리 이 과목 첫 시험을 망쳤을 때, 스톤사이퍼 교수는 개인 면담을 위해 나를 연구실로 불러 “당신이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도 원한다면 준비를 더 잘해서 다시 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나는 낙제점을 피하기 위해 수업을 일단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추천해준 언론법 관련 서적과 학술지 논문 등을 열심히 읽은 뒤에 그의 수업에 다시 들어갔다. 스톤사이퍼 교수는 그런 나를 보고 “학생에게 지난 학기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라며 웃으며 물었다. 그 사이에 나는 놀라울만큼 급성장해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미국 언론법에 폭 빠져들었다. 미국에서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대학원 과정: 두 대륙에 걸친 법률 연구

석사과정에서 나는 스톤사이퍼 교수의 ‘법률 및 정부 연구’를 수강했다. 이 수업이 향후 연구에 끼친 지속적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수업의 학기말 리포트(term paper) 주제를 ‘면책적 구성 원칙’(Innocent Construction Rule, ICR)로 잡았다. 이후 일리노

이주의 독특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매료되어 석사논문 주제로 선택했다. 주말에도 연구실과 자택에서 논문을 직접 점검해주신 스톤사이퍼 교수의 도움은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논문 관련 문헌을 검토하던 나는 저널리즘과 법학도들을 위한 교과서인 ‘매스커뮤니케이션법, 판례와 논평(1979년 3판)’에서 무해적인 해석 원칙에 대한 논의를 접하고 도널드 길모어(Donald Gillmor) 미네소타대 교수와 공저자인 제롬 배런(Jerome Barron) 조지 워싱턴 로스쿨 교수의 뉴욕 판례에서 이 원칙과 관련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을 지적했다. 스톤사이퍼 교수는 먼저 내게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한 후 길모어 교수에게 직접 문의해보라고 권유했다. 저명한 언론법학자인 길모어 교수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고, 인용된 뉴욕 판례가 개념적으로는 해당 원칙과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 책은 4판 개정에서 뉴욕 판례 부분이 삭제됐다.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톤사이퍼 교수는 “당신은 미국법에 대해 논문을 썼으니 박사논문은 한국법을 다루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한국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983년 봄, 스톤사이퍼 교수의 ‘언론 자유와 검열’ 수업 과정에서 나는 한국에 관한 팀페이퍼를 준비했고 같은해 여름 연구를 위해 아내와 함께 서울로 날아갔다. 독자적인 연구를 위해 한국 언론법에 관한 3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작성했고, 대법원 도서관, 국회 도서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대학 도서관에서 3개월 간 자료 조사를 마친 끝에 270페이지가 넘는 팀페이퍼를 완성해 스톤사이퍼 교수에게 보냈다.

연구 주제 설정, ‘설득력 있게 독창적으로’

학생인 나는 교수들로부터 연구 주제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 특히 스톤사이퍼 교수의 수업을 들을 때는 더욱 그랬다. 면책적 구성 원칙과 관련된 주제는 석사논문으로, ‘People v. Crosswell’ 사건 관련 주제는 학술지 논문으로, 그리고 한국의 언론자유는 박사논문 주제로 정했는데, 모두 스톤사이퍼 교수로부터 받은 주제들이었다.

학자로서의 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직접 선택한 주제로 집필해왔다. 두 번의 예외는 있었는데, 서울에서 열린 한국법률가 대회에 발표자로 초청되었을 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그리고 조지 워싱턴 학술지(Law Review)의 심포지움에 ‘반론권과 언론자유, 국제법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참여했을 때였다.

언론법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보통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 ① 나는 이 주제에 정말 흥미가 있는가
- ② 내가 이 주제를 다루는 첫 번째 연구자인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면 연구에 몰입한다. 사회과학인용색인(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저널이나 법률 저널 등 어디에 투고하여 출판할지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다. 1993년 발표한 논문 ‘해외법원에서의 미국 언론 제소: 미국 명예훼손법 우회하기’가 그러한 경우다. 한동안 나는 미국 언론이 해외에서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1991년 말, 우연히 앤서니 루이스(Anthony Lewis)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칼럼니스트가 런던에서 뉴욕의 한 언론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기사는 내가 미국 언론이 직면한 세계적인 혼란의 상황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나의 논문이 바로, 미국 언론이 해외에서 소송을 당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1995년 발표한 ‘명예훼손법에서의 언론소송: 법률적 사법적 프레임워크’(공저자: 더글라스 A. 앤더슨 Douglas A. Anderson) 역시 그러한 사례다. 논문에서 나는 “지금까지 언론소송의 법률적 사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자주 인용되는 명예훼손법 관련 논문에서 그러하다”고 적을 만큼 당시만해도 미국 언론법 분야에서 이 중요한 이슈를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밖에서 안을, 그리고 세계를 들여다보기

국제법 및 비교법적 언론법 연구에 대한 초기 관심은 다소 개인적인 것이었다. 나는 외국 태생의 학자로서, 외부인으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²⁾ 스톤사이퍼 교수가 한국의 언론 자유를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추천했을 때, 나의 지적 호기심은 일깨워졌다. 그것은 언론법에 대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6세기 영국의 미티오르 센수스(mitior seunsus)-문자 그대로 ‘관대한 의식(意識)(milder sense)-라는 학설이 미국 ‘면책적 구성 원칙(ICR)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하”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영국 명예훼손법의 미티오르 센수스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의 거의 3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은 내 논문에서 배태된 3개의 학술지 논문 중 하나로 발전했다.

글로벌 관점에서 언론법을 연구하면서 나는 개념적,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 적용에서도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권변호사들이 ‘세계인권선언과

2) Silber, Norman I. (2023). Outside In: The Oral History of Guido Calabresi. Oxford University Pres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내가 발표한 연구가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대법원에서도 나의 언론법 연구를 인용했다. 남아공 대법원은 법정 내 촬영에 관한 판결에서 2012년 논문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법적 견해에 자신의 연구가 인용되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완전히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는 짜릿한 증명이다”라고 했던 에릭 포스너(Eric Posner)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의 말에 나는 동의한다.

나의 글로벌 지향적인 연구가 전적으로 학술지 논문 작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가령, 나는 2020년 ‘커뮤니케이션법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커뮤니케이션 법과 정책>(Communication Law and Policy) 특별호의 객원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양한 학술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간접적이지만 연구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가령, 2024년 열리는 미국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교육협회(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컨퍼런스에서 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획기적인 사건인 ‘설리반 판결’(New York Times v. Sullivan)의 60주년을 기념하는 패널을 조직했다. 여기에서 이 패널들의 국제법적 비교법적 발표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기억에 생생한 것은 2002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론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컨벤션의 ‘언론에 대한 반론권과 접근권’ 세션이다. 내가 조직한 이 세션 패널에는 앞서 언급한 ‘매스커뮤니케이션법, 판례와 논평의 공저자이자 새로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로서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인 제롬 배런 교수가 참여했다. 이 세션은 스탠딩으로 진행되었다(계속) 🍷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FORTUITOUSLY: AN “ACCIDENTAL” MEDIA LAW SCHOLAR’S RETROSPECTIVE

Kyu Ho Youm

Jonathan Marshall First Amendment Chair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University of Oregon

Life tends to be more adventitious than preplanned. At least, this is true for me, which explains in part why I often say, “I’m an accidental college professor.” Teaching and researching in the United States—let alone being a media law scholar—was not what I had ever envisioned in the late 1970s, when I was planning to study in America, the “land of freedom and opportunity.”

Slightly more than 20 years later—in 1991, however, I wrote, “Doing research on First Amendment law has been a kind of ‘academic high’ for me since my first research presentation in 1983 as a graduate student.” This statement is still very much true for me in 2024.

This essay is my first-person story about my life as a Korean-born media law scholar in the United States—not my usual writing about what media law is and how to research it. A few years ago, Professor Ahran Park (Korea University) wrote about me for a book chapter (see “First Amendment Endowed Prof. Kyu Ho Youm, Who Has Contributed to Media Law Globalization,” *Eonronbeophakjoui Saengaewa Sasang [Media Law Scholars’ Lives and Thoughts]* (2022)). Although that chapter touches on my life to some degree, this is not a cut-and-paste job from Park’s excellent work as this piece is chock-full of not only professional but also personal happenings relating to my media law research of forty years.

The Dynamic Duo Behind My Scholarly Journey in America

Bokim Lee, my late wife, and Harry W. Stonecipher, my late mentor a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SIUC), deserve credit for what I am today. As an actively engaged journalism and law scholar, I owe them a deep for taking a chance on me—in Bokim’s case, as a life partner of nearly 40 years and in Stonecipher’s case, as his first and last international student in media law.

As a junior in college in Korea in 1978, I was unsure about what to study if and when my quixotic teenager dream of going to America would become reality. Bokim, then my campus sweetheart, recommended journalism. My consuming hobby of reading TIME and other English news magazines obviously led her to think intuitively that journalism would fit my personality and temperament.

In my application for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SIUC) Journalism School, I stated: “I’d like to major in journalism and then return home to Korea as an aspiring journalist.” Not one single word about “media law” appears in my statement of goals as an MA applicant. Significantly, however, I did mention freedom of the press. This was, in hindsight, not so much a carefully considered declaration of my long-term academic agenda as an expression of my genuine aspiration for a freer press in my native country of the 1970s.

Although I succeeded in being admitted to SIUC, as a student with no journalism or law background, I was literally floundering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and I would muse, “Shall I have a fighting chance?”

By happenstance, in my first year as an MA student, I took “Law of Journalism,” which Stonecipher, a renowned media law scholar, taught. When I failed the first exam beyond hope, Stonecipher called me into his office for a private conference. “I doubt you’ll survive the course,” he admonished matter-of-factly. “If you want, you may come back better prepared.”

I lost little time in dropping the media law course (to avoid a failing grade). However, after single-mindedly devouring the media law books, journal articles, etc., that Stonecipher had recommended, I retook his media law class. And then I thrived—beyond measure. “Mr. Youm,” Stonecipher asked with a smile, “what happened last semester?”

I got hooked on U.S. media law. It was the life-defining moment for me in America.

Graduate Work: Spanning Law on Two Continents

During my MA studies, I took “Legal and Governmental Research” from Stonecipher. The course’s enduring impact on my scholarly research has been immeasurable. For my term paper for the legal research course, I chose the “innocent construction rule” (ICR) as the topic. The unique Illinois common-law libel defense fascinated me so much that it became my master’s thesis project.

Stonecipher’s hands-on supervision of my thesis—both in his office and in his home, even on weekends—was life-changing for me. One memorable episode: While reviewing the relevant literature, I ran into a discussion of innocent construction in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3d ed. 1979), a major media law text for journalism and law students, I pointed out what I considered to be a questionable passage in the ICR discussion of a New York case by Professor Donald Gillmor (University of Minnesota) and his coauthor Professor Jerome Barron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After pushing me to take one more careful look, Stonecipher agreed with me about the problematic ICR paragraph and nudged me to directly query Gillmor. Gillmor, an eminent media law scholar, replied promptly, acknowledging that although the New York case cited was conceptually related to innocent construction, it was not directly on point. (Gillmor and Barron deleted their reference to the New York case when revising their book for its fourth edition.)

Not long after I began my PhD studies, Stonecipher said, “You wrote about American law for your thesis. You might research Korean law for your dissertation.” While confessing his limited knowledge of Korean law, he continued, “Not sure if there’s much research on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In the spring of 1983, for Stonecipher’s “Press Freedom and Censorship” class, I prepared a term paper on Korea. Then, in the summer of 1983, I, along with my wife, traveled to Seoul for research: for my independent study, I was assigned to complete a Korean press law paper of thirty pages. I managed to finish and mail to Stonecipher a term paper of 270-plus pages after three months of researching at the Supreme Court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ree university libraries (Seoul National, Yonsei, and Sogang).

Compelling and Unique: Setting the Agenda for Research

As a student, I borrowed topical suggestions from my professors. This was true, particularly when I was in Stonecipher’s classes. Some of the research topics from Stonecipher included the innocent construction rule for my MA thesis, *People v. Croswell* (N.Y. Sup. Ct. 1804) for a Journalism Monographs article, and press freedom in Korea for my PhD dissertation.

Since I began my academic career in the mid-1980s, though, I’ve written about topics of my own choosing. The only exceptions have been when I was invited to speak at a theme-specific conference (e.g.,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at the Korean Jurists Conference in Seoul) or to participate in a law journal’s symposium (e.g., “The Right of Reply and Freedom of the Press: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When deciding on media law research topics, I usually ask myself two questions:

- (1) Am I really excited about the topic?
- (2) Am I among the first to delve into the topic?

If I answer these questions affirmatively, I go all in on my research. Where to publish—in a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journal or in a law journal?—has rarely been a consequential question for me.

A case in point is my article of 1993, “Suing American Media in Foreign Courts: Doing an End Run Around U.S. Libel Law.” For a while, I had been mulling over U.S. media being litigated abroad. In late 1991, I fortuitously read New York Times columnist Anthony Lewis’s article on an ongoing libel case in London against a New York newspaper. It’s hardly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Lewis piece galvanized me into researching the globally disturbing development confronting U.S. media. My article was the first systematic analysis of why and how American media were being sued offshore and with what consequences.

Another example is my 1995 article, “Media Countersuits in Libel Law: A Statutory and Judicial Framework” (coauthored by Douglas A. Anderson). At that time, few had researched this important issue in American media law. “Thus far,” I wrote in the article, “the statutory and judicial status of media countersuits has rarely been analyzed.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ith oft-cited treatises on libel law.”

Outside, Looking In—and Looking Globally

My initial interest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media law was rather personal. As a foreign-born scholar, I was looking in as the outsider (see Norman L. Silber, *Outside In: The Oral History of Guido Calabresi* (2023)). And my intellectual curiosity was piqued when Stonecipher recommended Korean press freedom as my possible dissertation topic.

The singular, direct impetus for my approach to media law globally stemmed from my thesis research. My “aha” moment came when I discovered that the English doctrine of “mitior sensus” (literally, “milder sense”) of the sixteenth century was the origin of the American innocent construction rule. Nearly thirty pages of my MA thesis on mitior sensus in UK libel law evolved into one of three law journal articles spawned by my thesis.

In researching media law with a global outlook, I’ve tried to outgrow my U.S.-centric vision conceptually and theoretically, and also as a matter of practical application. Most gratifying to me is that my published research has been used by human rights lawyers in defending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s in England, Canada, Australia, South Africa, etc., have cited my media law research. The South African Supreme Court has extensively relied on my law review article of 2012 in ruling on cameras in the courtroom. I agree with Professor Eric Posner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Citation of one’s work in judicial opinions . . . is thrilling validation that one’s ideas are not completely useless.”

My global-oriented research has not focused entirely on authoring articles for academic journals. In 2020, for example, I served as a guest editor for a special issue of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title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ommunication Law.” Active involvement in various scholarly conferences has been another way for me to expand my research agenda, albeit indirectly. For the regional and 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EJMC) conferences in 2024, for example, I’ve organized panels on the sixtieth anniversary of *New York Times v. Sullivan*, the landmark First Amendment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Those panels, not surprisingly, featur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resentations.

Most vivid in my memory is the “Right of Reply and Access to the Media” panel for 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 convention in Seoul in 2002. I organized and moderated the panel, whose invited speakers included Barron, coauthor of the aforementioned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and the preeminent expert on access to the press as a new First Amendment right. The panel session was a standing-room-only event at the ICA convention.